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홍 의 표*

- | | |
|-------------------------|----------------------|
| I. 문제제기 | IV. 북·중 변경무역의 과제와 전망 |
| II. 중국의 변경무역 현황 및 관련 정책 | V. 결 론 |
| III. 북·중 변경무역 현황 및 특징 | |

Abstract

A Study on Cross-border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North Korea has remarkably increase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articularly the amount of the foreign trade in 2000s because Soviet Union was broken down and Western countries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relationship.

Cross-border trade with China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North Korean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granted the special border area for its cross-border trade needs. China exempts 50 percent of the import tariff and the value-added tax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ally lagging borderline area.

Key Words: cross-border trade, trade dependence, small-scale border trade, trade in the cross-border peoples's market, Dandong-Shinyiju

The cross-border trade's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reached 441 million dollars in 2005, and this amount become 27.9 percent of total trade volume. Cross-border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stly takes the form of the small-scale border trade. North Korea's export dependency on border trade with China is sharply increasing. This reflect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competitive export items and prefers the tax-favored cross-border trade. In North Korea, there are about ten national trade areas for cross-border trade. Among these areas, Dandong-Shinyiju is the most active border trade are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I. 문제제기

북·중 양국관계는 사회주의 이념의 공통성과 양국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전략적 인 중요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중국의 실용주의적 인 대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양국관계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만성적인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와 채무증가 등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외경제정책 하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 1992년 중국측이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한 경화결제를 요구한 이후 1993년과 1994년에 북·중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중 경제관계는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국지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전략의 한계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19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점개발전략이 발표된 이후 북·중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¹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출범한 2002년에 중국공산당은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동북지역의 노후된 공업기지를 새롭게 정비·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동북지역경제의 체제개혁 및 산업발전계획을 국가의 주요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다.² 또한 2003년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3차에 걸쳐 동북지역을 시찰한 이후, 같은 해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16기 3중전회에서 동북지역의 노후화된 중공업기지를 현대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중국경제 발전의 전략적 과제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정책으로 요녕성, 길림성 및 흑룡강성 등 소위 동북3성 지역은 중국경제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¹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중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국경제 예측화, 나아가 '동북4성'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² 중국공산당 제16차 당 대회에서 당 지도부는 "동북지역에 대한 조정과 개조를 통하여 자원개발을 위주로 한 도시를 건설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그리고 식량생산 지역으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발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동 지역과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실시해 온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동북지역의 개발프로젝트가 발표, 추진된 이후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계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급에 따른 교역확대 및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북지역의 시장경제화가 확산되고 경제발전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경우, 북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최근 더욱 확대 발전하고 있는 변경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변경무역을 중국 정부가 인접국과의 무역에서 여타 지역과는 달리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인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역방식이다. 북한과 중국도 1950년대부터 변경무역을 실시해 왔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변경무역을 최근 북한의 핵실험(2006. 10)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결정된 이후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변경무역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공하는 유력한 무역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당국의 부분적 제재조치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등으로 북·중 변경무역을 받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북·중 변경무역의 경우 결제가 은행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현물거래나 현금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의 외환거래 중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경무역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은 유엔 결의안에서 금지품목으로 규정한 대량살상무기나 전략물자로 전용 가능한 물자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물자가 일반 주민들의 생필품이나 곡물류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소규모의 거래나 생필품 및 식량 등의 유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변경무역을 북·중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양국간 교역에서 변경무역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변경무역 현황 및 관련 정책과 현재 북·중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무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중간 변경무역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변경무역 현황 및 관련 정책

1. 중국의 변경무역 현황

변경무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와 인접국 간의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승인된 기업 또는 개인들이 수행하는 무역을 지칭한다.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소액무역’, ‘변경호시무역’ 및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선,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소액무역경영권을 갖고 있는 국경지역의 기업이 국가가 지정한 육상국경통상구를 경유해서 인접국의 국경지역 기업, 또는 그 밖의 무역기관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활동이다. 변경호시무역은 국경지역의 주민이 국경선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개방지역’ 또는 ‘지정시장’에서 정해진 범위내의 금액, 수량의 상품교역 활동을 의미한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외경제기술협력경영권을 보유한 국경지역의 기업이 인접국의 국경지역에서 전개하는 청부공사와 노무협력프로젝트 등을 의미한다.³

중국과 주변국 간의 변경무역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⁴ 특히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 정부가 내륙국경지역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변경무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경무역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변경무역 방식도 다양화되었다.⁵

그 결과, 최근 중국과 국경지역 인접국 간의 무역은 급속히 발전하여, 매년 3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과 주변 13개 국가 간의 변경무역액은 94.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21.8%나 증가한 것이다. 이중 수출은 44.3억 달러로 27.3% 증가했으며, 수입은 50.4억 달러로 17.2% 증가하였다.

³ KOTRA, 『중국 광시성-베트남 변경지역 무역투자환경 조사』 (2005), pp. 8~9.

⁴ 중국에서는 중국 국외의 동일민족에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수가 30여개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변경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에 호시무역이 이루어져왔는데, 이와 같은 전통도 변경무역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⁵ 중국은 국경선이 길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주변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변경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 변경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변경무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국경지역의 지방정부와 인접국 간의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주변 13개국 간의 무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전체 무역에서 변경무역의 비중이 70%를, 네팔 및 몽골의 경우는 약 5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⁶

한편, 변경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상품무역 외에도 서비스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무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의 여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무청부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투자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경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중국과 주변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중국 국경지역 성·자치구의 무역 및 변경무역 현황(2004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총교역 (A)	변경무역 (B)	비중 (B/A)	수출액 (A)	변경무역 (B)	비중 (B/A)	수입액 (A)	변경무역 (B)	비중 (B/A)
내몽골	43.7	17.0	38.9	18.9	-	-	24.9	-	-
요녕	399.3	0.1	0.03	195.9	0.1	0.03	203.5	0.0	0.02
길림	74.9	2.5	3.4	19.2	1.4	7.1	55.7	1.2	2.1
흑룡강	71.8	25.4	35.4	37.2	12.6	33.8	34.6	12.8	37.1
광서	48.3	5.5	11.5	23.1	2.7	11.7	25.2	2.8	11.2
운남	37.3	5.2	14.0	20.2	3.1	15.3	17.1	2.2	12.6
티벳	2.1	0.1	4.3	1.7	0.1	5.2	0.5	0.0	1.1
신강	60.2	37.1	61.6	29.2	22.4	76.6	31.0	14.7	47.4

자료: 『中國海關統計』.

또한 변경무역은 중국의 변경지역 성·자치구 및 국경인근 지역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대외무역연감과 해관통계 등에 의하면, 2004년 각 성 및 자치구의 수출입 총액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흑룡강성이 35.4%, 신강

⁶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2006), p. 98.

이 61.6%, 내몽고가 38.8%를 각각 차지였다. 이 밖에 운남 및 광서의 경우에도 변경 무역은 성 및 자치구 수출입 총액의 약 11~14%를 차지하고 있다.

2. 중국의 변경무역 관련정책

최근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과 동북3성 등 동남부 연해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개방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의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⁷ 따라서 국경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확립한 ‘대서부개발’ 및 ‘동북진흥전략’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등에서 발표한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전략에 관한 많은 문서에는 변경무역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중발2000년 2호문서」는 서부지구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변경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국무원 국발2000년33호 서부대개발 실시를 둘러싼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통달」 역시 한층 분명하게 “우대를 강화한 변경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서부지구와 인접국들 상호간의 시장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발2003년 1호문서」에서도 “개방영역을 한층 확대해야 한다”며 “동북지역은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등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발휘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⁸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변경무역의 발전

⁷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선부론(先富論)’ 또는 불균형 지역발전전략에서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 하에서 부존자원, 인력 및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우선적 발전을 용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선부론’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광동성을 비롯한 동남부 연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점-선-면(點-線-面)’으로 이어지는 연해개방의 결과는 동남부 연해지역의 경제를 급성장시켰지만, 중서부 내륙 및 동북지역 등과의 심각한 격차현상을 야기시켰고,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자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은 1996년부터 지역간 격차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서부와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 지역 간의 상호보완을 강조하는 ‘비균형협조(非均衡協調) 발전전략’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2년에 등장한 제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 주석은 “농촌과 도시의 발전, 지역의 발전, 경제와 사회의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 요구의 통합적인 기획”이라는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교정하는 ‘지역균형(統籌協調)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전경련 차이나포럼 정치외교분과위원회, 『진흥동북 정책과 지역발전: 헤이룽장(黑龍江)과 랴오닝(遼寧)성의 비교』 (2006), pp. 11~12).

⁸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p. 99~100.

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 국내의 발전과 대외개방을 통일적으로 실행하는 데 유리하며, 또한 2개의 시장(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 2개의 자원(국내자원과 해외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접국들과 서로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발전전략을 형성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들어 변경무역에 관한 법제 정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1984년 12월에 「변경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 「국무원 변경무역 관련문제에 대한 공고」를, 1996년 3월에는 「국경지역 주민 호시무역 관리방법」을, 그리고 1999년 1월에 「변경무역의 발전에 관한 보충규정 공고」 등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규정들을 통해 제시된 중국 정부의 변경무역에 관한 주요관리방침과 특혜 조치들을 살펴보면,⁹ 우선, 변경호시무역은 1인당 하루에 3,000위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세하고, 3,000위안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기업이 매수한 물품을 내지로 운송할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매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은 변경주민 호시무역 정책에 따라 세금 및 서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셋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지정된 경우 통상구를 통해 원산지인 인접국가인 상품을 수입할 경우(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상품 제외)¹⁰ 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는 법정세율에 따라 50%만 부과하고 있다.

넷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현지에서 자체 생산한 곡물 등 국가중점관리 상품을 수출할 경우, 상무부가 매년 전년도 변경소액무역 수출상황, 생활현황 및 수급관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따로 변경지역 성, 자치구에 일정 수량의 수출쿼터를 배정하고, 이러한 권한은 부여받은 변경지역 성, 자치구의 대외경제 관련 부서에서 수출허기증을 발급한다. 한편, 국가에서 쿼터 및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일률적으로 쿼터허가증을 면제한다.

다섯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수입하는 이웃국가 원산지인 상품이 수입쿼터 및 제한등급 관리상품일 경우, 상무부는 매년 연도별 수입계획 총량 가운데 일부에 대해

⁹ KOTRA, 『중국 광시성-베트남 변경지역 무역투자환경 조사』 (2005), pp. 9~11.

¹⁰ 변경무역에서 세계감면 혜택 제외품목으로는 담배, 술, 화장품, 텔레비전, 촬영기, 비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공제시스템교환기, 마이크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가구, 주방용구, 음향설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다.

수입쿼터 혹은 제한등기한도를 정해 변경지역 성, 자치구 대외경제 관련 부서가 수입허가증 및 수입상품등기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변경소액무역을 영위하는 것은 무역방식 및 경영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경소액무역은 일반무역 수출 시 환급정책 혜택을 누리며, 일반무역 환급방법에 따라 수출 시 세금환급 절차를 밟는다.

일곱째, 대외경제기술합작권을 보유한 변경소액무역기업 및 변경지역의 변경소액무역권을 가진 대외경제기술합작기업은 모두 인접국가 변경지역과 공사수주 및 노무합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여덟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인접국 변경지역과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가로 받은 해당국 원산지의 물자는 프로젝트에 따라 임의로 반입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III. 북·중 변경무역 현황 및 특징

1. 북·중 전체교역 현황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교역, 투자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7.1조치 이후에는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조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중국 화폐(위안화)의 선호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부문 정상화를 위한 북한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최근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북·일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이 상당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아울러 중국 제품의 시장가격이 싸고 거래조건이 양호하며, 물류 등 교역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이후 북한 전체

¹¹ KOTRA,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 5)을 참조.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년의 이후부터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7억 3,817만 달러로 북한 전체무역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38.6% 증가한 10억 2,293만 달러를, 2004년에는 13억 8,52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량의 48.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5년에도 계속되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14.1% 늘어난 15억 8,034만 달러에 달해 북한 총교역의 52.6%를¹²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한층 심화되었다.¹³

<표 2> 북한의 대중국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수출입계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0	124,580	-	358,160	-	482,740	-	-233,580
1991	85,670	-31.2	524,780	46.5	610,450	26.5	-439,110
1992	155,463	81.5	541,107	3.1	696,570	14.1	-385,644
1993	297,290	91.2	602,350	11.3	899,640	29.2	-305,060
1994	199,217	-33.0	424,523	-29.5	623,740	-30.7	-225,306
1995	63,606	-68.1	486,187	14.5	549,793	-11.9	-422,581
1996	68,638	7.9	497,029	2.2	565,667	2.9	-428,391
1997	121,610	77.2	534,680	7.6	656,290	16.0	-413,070
1998	57,313	-52.9	355,705	-33.5	413,018	-37.1	-298,392
1999	41,709	-27.2	328,660	-7.6	370,369	-10.3	-286,951
2000	37,214	-10.8	450,824	37.2	488,038	31.8	-413,610
2001	166,797	348	570,660	26.6	737,457	51.1	-403,863
2002	270,685	62.3	467,309	-18.1	737,994	0.1	-196,624
2003	395,344	46.1	627,583	34.3	1,022,927	38.6	-232,239
2004	585,703	48.2	799,503	27.4	1,385,206	35.4	-213,800
2005	499,157	-14.8	1,081,184	35.2	1,580,341	14.1	-582,027

자료: 『中國海關叢書』.

¹²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남북교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이며, 만약 남북경협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 총교역에서 대중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이다. 남북교역은 26.0%를 차지하였다.

¹³ KOTRA,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조.

전체 교역에서 수출은 전년에 비해 14.8% 감소한 4억 9,916만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수입은 10억 8,118만 달러로 35.2%나 증가하였다. 1990년 초반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2004년에는 2억 1,380만 달러로 줄어든 적자폭이 2005년에는 5억 8,202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어패류, 철강, 광과 슬래그 및 회, 의류, 광물성 연료, 아연 등이다.¹⁴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특히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원부자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출품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비증가도 북한산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는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 식용육류,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등이다. 이 외에도 차량 및 부속품, 인조 필라멘트 섬유, 곡물, 제분공업 생산물, 철강 가공품, 채유용 종자 및 과일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들에 속한다. 최근 10년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은 1997~99년과 2002년 두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대중국 수입규모가 매년 30% 내외로 급증하고 있다. 2005년에도 대중 수입은 전년대비 35.2%나 증가하여 북한 전체 수입의 54%를 차지하였는데,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로 기계류 등이 북한으로 대량 유입되었고 중국 식량가격의 하락으로 대중 식량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은 주로 요녕성 단둥과 길림성 연변지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신의주-단둥 경로가 북·중간 교역의 약 80%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개의 무역회사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단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삼천리총회사, 평양시당 위원회 소속의 룡라도무역총회사, 39호실 소속의 광명성총회사 등 북한의 대표적 무역회사들이 상당수

¹⁴ 이와 같은 수산물 등의 1차산품 위주의 대중국 수출은 북한의 공업기반이 1990년대에 붕괴되어 여전히 생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상업성 있는 북한 상품의 부재로 우호 교역국인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어패류가 북한의 주력수출 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 수출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가능성에 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단동에는 중국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들이 126개가 있으며, 상당수의 조선족 기업과 북한거주 중국화교들이 북·중 간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¹⁵

특히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환경이 악화됨으로서 변경도시를 거쳐 거래되는 북·중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업소 및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 자재의 대부분을 변경도시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 제품의 대부분은 변경무역의 형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어패류, 섬유·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의 대중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2. 북·중 변경무역 현황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변경무역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녕성과 길림성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이루어는 변경무역은 양측의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북·중 간의 변경무역은 대부분 변경소액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변경무역은 지난 2000년부터 점차 활성화되어 2005년에 4억 4,141만 달러(북·중 무역총액의 27.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무역은 중국 국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경무역에 참여하려 한다. 현재 변경무역은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출될 경우, 일반무역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통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업도 대거 변경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¹⁵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KIEP, 2004), p. 7.

¹⁶ 북·중 간의 국경선은 약 1,309km이며, 랴오닝성은 단동시를 비롯한 3개의 시와 현이, 지린성은 훈춘시를 비롯한 10개의 시와 현이 북한과 인접해 있다.

¹⁷ 현재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2%, 평균 증치세율은 1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변경무역을 통한 경우, 일반무역을 통한 것보다 14%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들어 북·중간 변경무역에 주어지던 세제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고 있다.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 정부는 2003년에 이미 변경무역 관련 세제감면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했다(KOTRA, 『경제속보』, 2004.10.29).

<표 3> 북·중 변경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연 도	북한 총 무역액	북·중 무역액	변경무역액	변경무역의 대중 수입액	변경무역의 대중 수출액
1997	21.7	6.5	2.1	1.5	0.6
1998	14.4	4.1	1.3	0.9	0.4
1999	14.8	3.7	1.0	0.7	0.3
2000	19.7	4.8	1.3	1.0	0.3
2001	22.7	7.37	1.56	1.16	0.4
2002	22.6	7.33	1.53	0.99	0.54
2003	23.91	10.23	1.96	1.15	0.81
2004	28.57	13.85	3.00	1.44	1.56
2005	30.02	15.80	4.41	2.59	1.82

한편, 양국간 변경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변경무역에 대한 대중 수출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도 북한은 전체 대중 수출이 전년대비 14.3% 줄어들었지만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중 수출에서 변경무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별로 없는 북한의 현실과 일반무역에 비해 세제우대가 되는 변경무역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수입의 경우에도 변경무역은 2005년에 전년대비 80.6%나 급증하였으며, 비중에서도 일반무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4%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북·중 교역에서 변경무역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양국간 변경무역 규모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무역기업 또는 기관에 의한 변경소액무역과는 달리 변경지역 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변민호시무역은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관규정에 따르면, 변경지역주민들은 국경 출입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하루에 ▲3,000위안의 현금 ▲1,000위안 이내의 일반생활용품 및 식품 ▲담배 400개피 ▲술 2병 ▲재봉틀, 녹음기, 선풍기, 카메라, 세탁기, 냉장고, 자전거, TV 중 1개 등을 휴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모두 활용한다면 개인이 하루에 약 5,000위안(약 600달러) 내외의 호시무역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들이 휴대해서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변경무역을 통한 물자유입과 거래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표 4> 북·중 거래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비중
일반무역	9,717	8,842	20,880	75,000	147,845	97.3	29.6
변경무역	40,025	54,960	81,319	156,384	181,932	16.3	36.4
가공무역	21,175	10,990	10,333	21,684	20,941	-3.4	4.2
보세무역	94,861	191,903	278,268	321,119	145,444	-54.7	29.1
무상원조	-	-	-	26	-	-	0.0
기 타	1,019	4,168	4,544	11,446	2,991	-62.5	0.6
합 계	166,797	270,863	395,344	585,703	499,157	-14.3	100.0

주: 증가율 및 비중은 2005년 기준

자료: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호

<표 5> 북·중 거래형태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비중
일반무역	347,038	300,314	431,269	566,243	678,466	19.8	62.8
변경무역	116,686	99,333	114,657	143,656	259,479	80.6	24.0
가공무역	26,293	22,481	44,892	35,165	51,633	46.8	4.8
보세무역	8,727	19,038	20,439	20,844	43,565	109.0	4.0
무상원조	69,129	15,968	10,888	14,556	38,123	161.9	3.5
기 타	2,787	10,175	5,438	4,601	9,912	115.4	0.9
합 계	570,660	467,309	627,583	799,503	1,081,184	35.2	100.0

주: 증가율 및 비중은 2005년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¹⁸ 이영훈,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06.3), p. 10.

북·중 변경무역의 교역품목도 최근 들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주로 식량, 코크스 및 경공업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상업·유통부문과 시장의 기능이 중시되면서 주요 수입물자들은 기존의 식량과 경공업 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류, 중공 엔진, 알루미늄 합금 건축자재, 도로 및 건축 장식재료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간 일반무역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1,400종류 이상인데, 변경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물자의 종류도 9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도 북한이 국가간 일반교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70여종인데, 변경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물자가 120종에 달하여 수출부문의 경우, 일반무역보다 변경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물자가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은 광물, 철강, 목재 및 수산물 등으로서 대부분 천연자원이거나 1차 가공품들이다. 최근 주요 수출대상 품목들 중에서 철강 및 석탄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동북3성 지역의 개발과 맞물려 북한내 원부자재에 대한 이 지역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입품목으로서 2004년에 들어서 곡물 도입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의 북·중 변경무역을 보면, 북한은 광물 및 금속을 수출하고 곡물 및 코크스를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정미의 수입이 급감한 대신에,¹⁹ 쌀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밀가루 및 대두 추출물 등의 수입은 늘어났다. 또한, 곡물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에 광물성 에너지, 철강제품 및 건축자재 등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²⁰

¹⁹ 한국은행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최근 곡물 수급불균형은 국제곡물가격 급등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한국은행, 『중국의 곡물부족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2004.7.9).

²⁰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2005), pp. 106~108.

<표 6> 북한 대중국 변경무역 수출품 추이

(단위: 천 달러)

HS	종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204	재용해용 폐철	3,412.00	6,748.00	12,659.00	22,750.00	33,324.00
2601	철광과 그 정광	725.00	711.00	1,907.00	21,066.00	29,773.00
2701	석탄(무연탄)	207.00	1,490.00	3,645.00	6,551.00	20,468.00
7201	선철	6,916.00	9,405.00	12,115.00	28,299.00	19,464.00
7207	철, 비합금강 반제품	6,052.00	8,047.00	11,830.00	11,272.00	13,287.00
0307	어패류(오징어, 조개)	833.00	5,098.00	3,013.00	16,174.00	9,139.00
2616	귀금속과 그 정광	696.00	2,259.00	2,710.00	5,114.00	6,792.00
4403	원목	1,931.00	3,655.00	6,698.00	10,829.00	6,095.00
1211	약초 및 인삼	162.00	41.00	207.00	739.00	2,504.00
2716	전기에너지	582.00	132.00	769.00	2,014.00	2,365.00

자료: 『中國海關叢書』.

<표 7> 북한 대중국 변경무역 수입품 추이

(단위: 천 달러)

HS	종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01	밀가루	7,166.00	5,378.00	5,542.00	10,656.00	21,573.00
1006	정미	6,639.00	14,187.00	21,274.00	7,090.00	11,320.00
540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675.00	2,055.00	3,150.00	4,260.00	9,831.00
2701	석탄(유연탄)	10,062.00	7,078.00	12,171.00	7,588.00	7,658.00
3918	플라스틱제 바닥재	2,759.00	1,046.00	750.00	791.00	7,514.00
8704	화물자동차	602.00	999.00	1,170.00	3,651.00	7,143.00
1507	대두유	501.00	197.00	339.00	873.00	5,994.00
1005	옥수수	582.00	361.00	717.00	954.00	4,043.00
2710	석유제품	4,039.00	2,354.00	3,140.00	3,134.00	3,645.00
6908	타일류	787.00	669.00	1,229.00	2,919.00	3,127.00

자료: 『中國海關叢書』.

<표 8> 북·중 국경지역의 주요 세관 현황

소속지명	중 국 세관명	유형	북 한 세관명	통관능력		실적		거리 (km)	분류	
				화물 만톤	인/일	화물 톤	인			
吉林省	琿春市	圜河	도로	라진	60	60	162,393	162,089	42	국가1급
	琿春市	沙坨子	도로	새별	10	10	5,863	11,242	11	지방2급
	琿春市		도로	함북 훈계						폐기
	圖門市	圖門	도로	남양(청진)	20	10	481,689	21,161		국가1급
			철도		275		565,474			국가1급
	龍井市	開山屯	도로	삼봉	10	2	930	2,554	37	국가2급
	龍井市	三合	도로	회령	40	8	13,120	16,755	47	국가1급
	和龍市	南坪口	도로	무산	60	100			50	국가1급
	和龍市	古城里	도로	삼장	10		6,936	4,899	80	지방2급
	安圖縣	雙目峰	도로	삼지연군					50	공무용
	長白縣	長白	도로	혜산			36,075	31,846		지방2급
	白山市	臨江	도로	자강도 중강			10,777	10,926	80	국가2급
	集安市	老虎哨	배	양강도 위원			11,400	4,071	67	지방2급
	集安市	集安	철도	포구	100		44,237	15,086		국가2급
遼寧省	丹東		도로	신의주	100	1,755				국가1급
			철도		400	200				국가1급
	丹東	啞巴溝	배	삭주항	10		40,000		90	지방2급
	丹東	長甸河口	배	평북 삭주군	50		82		55	지방2급
	丹東	太平灣口	도로	평북 삭주군				1,737	50	지방2급
	丹東	丹紙碼頭	배	신의주			30,000		20	지방2급
	丹東	大鹿島	배		1		1,000			지방2급
	丹東	大臺子	배	평북 신도군	10		4,560		26	지방2급

자료: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26

현재 북·중 변경무역은 단둥, 집안, 장백, 도문 등 10여개의 세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단둥세관은 북·중 무역을 담당하는 가장 큰 세관이다. 특히 단둥세관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업 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신의주, 남포 등 북한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지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북·중 무역의 최대 창구가 되고 있다. 단둥세관은 1943년 건립되어 1973년 한 차례 보수작업

을 한 후, 급증하는 북·중 무역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3년에 2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대규모 증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였다. 북·중 무역의 대부분의 물자가 이동하는 압록강 철교는 과거에는 10톤 이하 화물차량만 통과할 수 있었지만, 개·보수 이후 20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²¹

한편, 두만강유역 및 길림성 인접 지역에서도 국경지역 세관들을 통한 변경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길림성 및 연변과 접해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은 석탄, 철강 등 흑색금속공업 생산기지이며 양강도는 중요한 목재의 산지다. 이러한 자원은 변경무역의 주요 거래품목이다. 길림성지역의 주요 세관 중 훈춘시 권하세관은 1998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비준을 받아 국가1급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권하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통과 화물량은 연간 60만 톤 이상이며, 통과 인원수도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권하는 길림성에서 북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연길~나진~부산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화물선의 주요 운송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점들로 권하세관은 연변과 북한간 변경무역을 위한 주요 창구가 되고 있으며, 국경지역 관광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²

3. 북한-단동간 변경무역

단동시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국경도시이며, 단동세관은 북·중 무역에 있어 가장 주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단동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비롯하여 공업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북한 서부지역과 가까이 있고, 육상교통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북·중 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변경지역 무역에서는 운송 인프라로서 압록강 철교뿐만 아니라 해상운송도 점차 중요한 교역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동지역을 경유하는 일일 통관이용차량은 500대 정도이며, 물량이 많을 때는 700여대에 이르기도 한다. 통행인원은 1일 1,755명, 화물수송량은 1일 400톤에 이르고 있다.²³ 또한 2003년 압록강에서 변경무역 운송을 담당하는 북한측 화물선은 2002년의 18배에 달하는 56척에 달하며, 이 중에서 500톤급의 대형선박도 상당수 운행중에 있다.²⁴ 현재 단동세관은 국가무역을 중심으로

²¹ 현재 단동세관을 통과하는 80%의 화물은 주로 압록강 철교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한편 단동세관에서는 2004년 1월 20일부터 단동~신의주 및 단동~평양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매주 5회(월~금) 운행하고 있다(『黑龍江新聞』, 2004. 1. 20).

²²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 9.

²³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29.

변경무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다른 세관들은 변경무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단동은 북·중 변경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창구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단동-북한 간의 변경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무역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경무역의 증가는 단동시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0년 단동시의 총생산액은 9.9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 현재 35.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경제규모가 3.5배 이상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생산총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는 2.0%에 불과했지만, 2004년 현재 37.4%에 달하여, 대외무역의존도가 1990년의 3.0%에서 2004년 현재 58.7%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2004년의 단동시 세관을 통한 북한 수출액은 5.8억 달러로, 전년대비 33.5%나 증가하였다. 단동시를 통한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북 수출규모의 74%에 달하는 것이다. 2004년도 단동시에 있는 기업들의 대북 변경무역액은 3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²⁶ 이는 단동시의 대북 교역액의 54.2%에 달하는 것이다.²⁷

둘째, 무역품목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변경무역의 거래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출상품 구성도 합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단동시의 대북 수출상품으로는 일용잡화, 의류, 식량, 전기제품, 기계설비, 석유제품, 농약 및 화학비료, 화학공업제품 등 많은 종류의 물자가 거래되고 있다. 이 중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품도 20여종 정도 있고, 수출상품 내에서 원자재 또는 가공도가 낮은 제품이 감소하는 대신 가공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04년 현재 공업제품이 총수출금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의 대북 수입상품은 원료 및 원자재, 철강, 목재, 석탄, 액화가스, 수산물, 광산물, 비철금속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²⁴ 단동의 압록강 맞은편에 위치한 신의주에는 8,000여명에 달하는 화교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북·중 변경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²⁵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p. 131~133.

²⁶ 이 중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2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²⁷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31.

<표 9> 단둥시 무역총액과 단둥기업의 대북한 무역액

연 도	단둥시 무역총액(억 달러)			단둥기업의 대북 무역액
	총액	수출	수입	
1990	0.3	0.2	0.1	0.2
1991	0.3	0.3	0.1	0.3
1992	0.4	0.4	0.1	0.4
1993	0.7	0.5	0.2	0.6
1994	1.3	1.1	0.2	0.8
1995	2.0	1.8	0.2	1.0
1996	4.0	2.6	1.4	1.1
1997	6.1	3.6	2.5	1.5
1998	6.6	4.0	2.6	1.7
1999	6.9	4.1	2.8	1.8
2000	9.7	6.1	3.6	1.8
2001	12.1	7.8	4.3	2.0
2002	14.3	9.0	5.3	2.2
2003	16.6	10.6	6.0	2.7
2004	20.6	13.1	7.5	3.1

자료: 단둥시 상무국의 정보: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32에서 재인용.

셋째, 무역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방식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바터무역에서 현금결제무역,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으로 방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는 무역품목이 다양화되고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역품목이 다양화되면서 일부품목의 경우, 가공무역 방식이나 중계무역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변경무역의 경우, 바터형식이나 소액현금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넷째, 변경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나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요녕성의 변경무역회사가 변경무역을 독점했었다. 그러나 현재 단둥지역에는 무역회사와 민간기업, 국경소액무역기업 등 다양한 무역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160개 사에 이르고 있다. 중국계 기업 이외에도 100여개에 달하는 외자기업과 단둥주재 단체 등이 있다.

다섯째, 국제적인 경제기술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느리고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기술협력 추진과 북한내 합작기업 설립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단동에는 북한과의 합작기업이 8개 사²⁸가 있고, 이에 대한 중국측의 투자 규모는 약 500만 달러 수준이다.²⁹

여섯째, 변경무역에서 북·중 간의 관광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88년부터 중국과 북한 간의 관광부문 협력이 시작되어, 단동과 평양, 묘향산, 개성 등을 연결하는 국제관광상품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여행객은 연평균 3~5만 명에 달하며, 매출이 5,000만 위안에 달하고 있다. 단동지역에서 국제관광업무를 개설한 기업은 30개 사로 늘어났으며, 현재 대북한 관광사업은 단동시의 중요 산업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³⁰

4. 북한-연변간 변경무역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북·중 무역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심이 대부분 단동으로 집중되었지만, 1990년 초반까지는 북한-연변 간의 변경무역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2년 11월 국무원에서 실시한 새로운 변경무역관리정책으로 각종 규제나 제한들이 완화·폐지되면서 연변지역을 통한 북·중 변경무역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1992년과 1993년 2년에 걸쳐 연변의 무역회사들은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1993년도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은 3억 2,337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³¹

그러나 1994년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의 변화 및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연변지역의 변경무역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1998년의 경우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은 3,163만 달러로 같은 해 북·중간 전체 변경무역의 21%에 불과했다.³² 반면 단동을 통한 변경무역은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연변지역의 변경무역액을 초과하였다. 2001년부터 단동의 대북한 무역액은 2억

²⁸ 상점이 2개, 식당이 3개, 가공공장이 2개, 수산양식회사가 1개이다.

²⁹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33.

³⁰ 위의 책, p. 133.

³¹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통일문제연구』 (2000년 하반기호), p. 47.

³²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 10.

달러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변지역의 대북한 무역액은 6,833만 달러에 그쳐 단동의 30% 수준에 머물렀으며,³³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³⁴ 북한-연변 간 교역상품구조를 보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³⁵ 폐철, 해산물 등이며, 수입 품은 식량을 비롯하여 비료, 연료, 가공기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0> 북한-연변 변경무역 현황

(단위: 만 달러)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변경무역액	14,529	32,337	22,615	5,511	2,941	3,535	3,163	5,073	4,872	6,833	9,459	11,656

자료: 『중국해관통계』;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p. 48;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 11.

연변지역과 북한 간의 국경 통상구는 모두 7곳이 있다.³⁶ 우선 가장 대표적인 곳이 권하통상구이다. 길림성 훈춘시 권하촌에 설치된 이 통상구는 북한의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해관과 마주하고 있으며, 연변과 북한간 무역의 가장 중요한 통상구이다. 1937년에 설치된 후 1982년에 문을 닫았다가 1995년에 다시 개통되었으며, 2001년 10월에 중국 해관에 의해 국가1급 통상구로 승격되었다. 권하는 길림성에서 나진·선봉지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상구로서 훈춘~나진~부산항을 통하는 해륙콘테이너 국제수송선이 개통되어 있다.³⁷ 권하통상구의 연간 여객통행능력은 60만명이며, 연간 화물통과능력도 60만 톤에 달한다.

둘째, 도문통상구이다. 도문시는 길림성 연변자치주의 현급 도시로, 길림성에서 가장 큰 변경도시이다.³⁸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과 마주하고 있는 도문통상구는 1924년

³³ 위의 책.

³⁴ 최근 북한-연변간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단동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계속 뒤쳐지고 있다. 2005년도 연변자치주의 무역총액은 7.2억 달러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다. 연변자치주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북한, 한국, 러시아인데, 2005년도 북한과의 무역은 2.6억 달러(전년대비 20.6% 증가)로 전체 교역의 36%를 차지하였다.

³⁵ 2005년 상반기에만 북한이 연변에 수출한 철광석은 42만 톤, 금액으로는 2,166만 달러에 달하였다.

³⁶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pp. 51~53.

³⁷ 연변의 현통집단은 권하 통상구를 이용하여 연결-나진-부산을 연결하는 콘테이너 정기수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³⁸ 도문시는 2004년 현재 인구가 13.5만 명이며, 이 중 57.4%가 조선족이다. 시의 GDP는 14.7억 위안이며, 이 중 1차산업이 0.7억 위안, 2차산업이 8.0억 위안, 3차산업이 6.0억 위안을 각각 차지하였다(『吉林統計年鑑 2005年』을 참조).

에 설립되었으며, 철도와 도로가 모두 구비된 현대식 1급 통상구이다. 북·중간 통상구 중에서 통관화물량에 있어 단동에 이어 제2의 통상구이다. 철도를 이용한 연간 화물통관능력이 270만 톤, 인력수송은 12만 명이다.

셋째, 사타자통상구이다. 훈춘시 삼가자항에 설치된 이 통상구는 훈춘시로부터 11 km 거리에 있는 지방 2급통상구이다. 북한의 함경북도 새별군통상구(북한의 1급 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사타자통상구는 전통적인 민간무역통상구인데, 화물통과능력은 연간 10만 톤이며, 여객수송수도 10만 명 수준이다. 1995년 권하해관이 개통되기 전까지 화물량이 많았으나 현재는 화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향후 사타자통상구의 통관능력 확장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국가2급 통상구로 승격시키는 것이 길림성 대외개방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넷째, 개산둔 통상구 연변자치주 용정시 개산춘진에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통상구와 마주하고 있으며, 국가2급 통상구이다. 화물통관능력은 연간 2만 톤이고 여객통관 수는 연간 2만 명이며, 차량통과능력은 5천대이다. 이 통상구는 1923년도에 설치된 후 ‘문화대혁명’ 기간에 폐관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개관되었다.

다섯째, 삼합해관이다. 용정시 삼합진에 설치된 이 통상구는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이 통상구의 화물통관능력은 연간 40만 톤이며, 여객통관수도 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차량통과는 연간 1만 5천대가 가능하다. 삼합통상구는 국가2급 통상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통상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한방약재가 대부분 반입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북한의 청진시와 가깝기 때문에 관련 화물 통과량이 많다.

여섯째, 남평통상구는 화룡시 덕화향 남평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군 칠성리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길림성 내에서 북한과의 무역에 있어서 남평통상구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통상구는 중국이 최근 철광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으로는 유력한 대중 수출품목인 철광석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를 통해 2003년 10월부터 통상구를 재개하였다.³⁹ 중국측은 철광석, 파찰, 목재 등을 수입하고, 북한은 중국에서 식량과 방직품, 전기제품, 공작기계 등을 수입하고 있다.

³⁹ 연변철지공업무역유한공사는 2003년부터 북한의 무산철광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초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대외무역 경영권과 변경무역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중국 내에서는 유일한 철광석 무역분야의 대북 무역회사이다.

일곱째, 고성리통상구는 화룡시 승선진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한의 양강도 대흥단군 삼장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1933년에 설립되어 1985년에 지방2급 통상구로 승인을 받았다. 1994년에 ‘중조국경교’를 건설하여 화물이 원활하게 통과되고 있으며, 주로 북한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1997년 6월에 변경무역활성화의 조치의 일환으로 라선시 원정리에 북·중 공동으로 무역시장을 개설하였다. 원정리 변민호시무역시장은 초기에는 북·중 양측이 각각 50명 규모로 하였으나 후에는 각각 150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장 많을 때에는 중국측 500명, 북한측 300명까지 증가하였다. 원정리 변민호시무역의 거래 상품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어 있고 1일 1인당 인민폐 3,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였다. 이 시장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주로 나진·선봉지역의 주민들과 훈춘시 시민들이었는데, 북한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주요한 물품은 해산물과 토산품이었고 연변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주요한 물품은 복장, 신발, 일상생활용품과 식량, 부식품들이었다.⁴⁰ 그러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면서 호시무역시장에서 북한상인들은 달러와 엔화를 주고 연변상품들을 사들였다. 북한측에서는 달러와 엔화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호시무역시장에서 달러와 엔화의 유통을 엄금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원정리 시장에 들어오는 상품과 교환화폐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자 북한상인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99년 5월에 원정리 호시무역시장은 자동 폐장되었다.⁴¹

IV. 북·중 변경무역의 과제와 전망

1. 북·중 변경무역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변경무역은 양측의 필요성(중국은 국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 북한은 필요한 물자의 수입 및 유리한 수출환경 활용)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북한경제의 회생과 중국 동북진

⁴⁰ 원정리 시장은 경기가 좋아 훈춘시에는 한 때 ‘호시무역시장’ 장사까지도 나타났고 평균 일일 교역액은 40~60만 위안에 달하였다. 1997년 말 호시무역시장에 다녀온 중국측 변경주민은 8,400명에 달하였고 무역액도 약 1,600만 위안에 달하였다.

⁴¹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p. 54.

홍전락 등이 맞물리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경무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촉진하고 ▲북한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중국인(조선족 포함)들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를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북·중 변경무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변경무역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의 변경무역 통계를 보면, 최근 수년간 무역총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길림성의 대외무역 총액은 65.3억 달러이지만, 이 중 대북 변경무역액은 2억 5,408만 달러로 성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불과하다. 요녕성의 경우도 2004년 교역총액이 410.1억 달러인데, 이 중 북한과의 변경무역액이 1% 수준인 2.7억 달러에 불과하다. 북·중 변경무역이 이처럼 규모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전력부족과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1980년대 말에 비하면, 85% 수준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1989년 48억 달러, 2005년 41억 달러).⁴³

또한 북한의 산업생산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 거의 없고, 외화부족도 심각하여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 북·중 변경무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전체적인 무역규모는 여전히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제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국제관례에 따른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관리체제는 미비한 부분이 많고, 많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례로 북한의 대외무역 기업과 조직단체는 지휘계통이 복잡하며 실제 무역에 종사하는 기관들의 대다수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낭비도 크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국제관례에 따른 거래를 어렵게 하며, 북한과의 기업제휴 및 거래 등을 고려하는 중국측 기업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중국측 기업들의 대북 협력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⁴²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p. 13~15.

⁴³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남북교역을 포함한 것이다.

있고, 양국간 경제협력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 및 무역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에 대해 엄격한 중앙집권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무역 정보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측 관계자가 북한에 들어가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엄격한 통제가 따른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북한측의 무역수요, 관련회사의 신용정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북한측 무역담당자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도 없고, 북한은 중국측 무역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의 불완전성과 불균형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무역 및 경제활동에서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북·중 변경무역의 전망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과 북한간 경제협력의 주요 통로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 2,000km에 달하는 국경선과 10개의 항구,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이 모여살고 있는 등의 객관적 조건들은 북·중 변경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에 풍부한 철광석, 석탄 및 각종 비철 금속 자원 등을 중국측은 원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산지가 많고 경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매년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길림성은 중국 내 식량생산지이며, 매년 대량의 잉여농산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길림성의 농산물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잉여농산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자원에 힘입어 북한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대외무역의 증가에 따라 북·중 일반무역과 변경무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북·중 변경무역은 15억 8천만 달러에 달하여 2004년에 비해 14.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북·중 변경무역은 200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변경무역

의 거래품목도 이전의 일용품과 식량 등의 단순물자에서 이제는 기계제품, 화학공업 제품, 방적품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⁴⁴ 거래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⁴⁵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간의 변경무역은 향후 수년 내에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북·중간 변경무역의 현상분석과 전망에 기초해서, 향후 양국간 변경무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지역 개방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 확대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국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북한과의 무역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은 과거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조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변경지역의 개방과 한반도(남북한을 포함)와의 경제협력을 구 공업기지 개조와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변경지역의 개방은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중요한 요소이고, 동북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동북의 변경지역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이 모여살고 있고,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 실현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경무역에 대한 북한과 중국 양측의 입장과 인식을 충분히 고려할 때, 현재의 변경무역 규모를 보다 큰 규모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조체계 하에서 관련 인프라의 정비, 제도의 정비 및 보완, 지방법규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둔 정책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북·중 무역 및 경제협력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무역에서는 소액변경무역이 변경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접투자와 중계무역 등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유희화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생산라인을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설비 및 기술투자를 확

⁴⁴ 향후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식량, 원유, 코크스, 기계 등의 주요 전략물자의 최대 공급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경무역을 포함한 북·중교역의 주요 교역품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식량, 원유, 코크스, 각종기계 및 원자재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⁴⁵ 최근 들어 북·중 변경무역에서 대북한 투자리스크의 분산을 위해 보상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변의 기업과 북한 무산철광 간의 제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투자의 형식과 무역의 형식을 동시에 갖고 진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상무역 방식이 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이용한 사업들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 이는 동북지역의 구 공업기지 개조에도 유리하고 북한과의 무역에서 누적된 대량의 무역흑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 변경 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제품을 북한에서 가공하고 북한산 원산지 증명을 받아 한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도 상당한 실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중 양측의 무역질서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 무역기업의 활동상황에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정부는 무역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에서 질서 있는 무역과 경제협력 관행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경지역에서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무질서한 비용징수를 방지하여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동북의 변경지역에 양국 정부 간 연락조정기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접경지역의 인프라 건설, 통관수속, 무역분쟁 등의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밖에 무역관련 기업, 조직단체 및 중개조직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서 무역 및 경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간 교류와 의견교환 등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기업 간 협력과 건전한 경쟁 및 거래비용 인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프라 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인프라의 정비는 쌍방의 경제협력 및 무역 등을 확대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그 중에서도 철도·도로 등의 물류·교통관련 인프라의 정비 및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출제품의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상품의 가격만을 중시하고 제품의 질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상품의 품질관리 문제는 대북한 무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 이익에 착안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여 북한과의 무역에 좋은 이미지와 신용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점개발전략의 발표와 경제발전은 북·중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중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이라는 중국측의 필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 및 대중 수출 확대라는 북한측의 필요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북한경제의 회생과 중국 동북진흥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변경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북·중간 경제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변경무역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녕성과 길림성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이루어는 변경무역은 양측의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중 간의 변경무역은 대부분 변경소액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변경무역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별로 없는 북한의 현실과 일반무역에 비해 세제우대가 되는 변경무역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 변경무역의 확대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촉진하고, 북한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개혁·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중 간의 변경무역은 기존의 교역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점차 노무협력이나 투자협력 및 지역연계 개발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변경무역을 통한 북·중 접경지역 간의 상호의존성이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접경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해 자원의 공동이용과 외국인 투자의 촉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의주-단동, 함경북도 나선-연변은 상호보완성 향상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신의주-단동지역과 같은 북·중 접경도시들의 경제교류는 변경무역의 중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구조나 외자유치, 도시기능의 상호보완성 등을 확대하고 연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신의주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외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이 동북3성의 개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신의주-단동, 나선·청진-연변 등의 접경 지역들 간의 경제협력과 연계개발은 북한진출과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고려하는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북·중 간의 변경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중 변경무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유력한 무역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북 경제제재를 엄격하게 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경무역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경제제재의 대상과 무관한 일반주민들의 생필품이나 곡물류라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